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최근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항공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전반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성도들이 국가적 위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하루 두 번(아침과 저녁 취침 전), 새해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 주님!**
불안과 슬픔에 빠진 이 나라 국민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 맡은 소임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미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 진리와 공의를 담대히 선포하며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 주님!**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지혜와 공정함으로 이 나라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 주님!**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공직자들이 국민 보호의 소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 주님!**
한국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장하여 나라와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소천 2주기 추모 행사

교회는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소천 2주기를 맞아 2025년 1월 17일(금) 목사님의 묘소를 방문합니다. 이날 천안공원묘원을 함께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전 8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2025 교역자 업무 분장

담당자	위원회·부서	당회소속기관
김익환 부목사	교구(1,3,6,7,8)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교구위원회 전도위원회 신혼가정부	제1·2스테반회 제1·2권사회 순례자 멀티미디어
최종국 부목사	교구(2,4,5,9) 새가족위원회 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새가족부 세례교육부	성경대학 의료선교회 Vision2030
황하은 부목사	청년부·소망부 주내힘 찬양단 (3부 예배 찬양단) 교육위원회 구제위원회	목회지원 상담부 장학회
손주찬 교육목사	중등부	멀티미디어 유튜브관리
성선혜 준전임전도사	영아부 유아부	살롬대학
김가은 교육전도사	유치부	
배인혜 교육전도사	고등부	
조하영 교육전도사	초등부	
안반석 교육전도사	유년부	
양정호 협동목사	사랑부 신앙강좌부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무거운 분위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며칠 전 발생한 항공 참사는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충격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이 땅에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의 혼란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더 간절해집니다. 2025년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다시 새겨 넣읍시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도구가 될 것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새해는 국가적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슬픔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역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으로 교회의 새 역사를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함께 이어갑시다.

교우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슬픔의 자리에 위로가, 혼란의 자리에 평강이, 어둠의 자리에 빛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밝고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손달익 목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2025 섬김위원 발표 순)



진정한 청빙이 이루어지는 해



최형열 장로
(당회 서기)

갈등과 혁신 속에 희망을 품은 2025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서울교회의 4대 목사님을 모시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백년대계(百年大計)의 한 주춧돌을 놓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 믿고 나아갑니다. 교회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것은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청빙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목사님을 모셔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다>라는 깃발 아래, 2024년 말로 46회이며, 누계 4,200여 명이 되

었고, 매주 토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은 기도 외에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고, 단 일 분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말씀과 기도로, 논현에서 출발하여 반포를 거쳐 대치에 이르기까지, 막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 뜻 되어 서울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진정한 청빙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강인 장로
(기획위원장)

하나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 훗날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 서울교회 앞에는 4대 목사님 청빙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위원회는 이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한 치의 실수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임하여 매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 사안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청빙위원회는 지원하신 분들을 심사하며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을 보기 보다는 복음적 설교를 하시는 분인지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지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물론 신앙적 인품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일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빙위원회는 올바른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마흔네 분의 지원자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최종 심사를 거친 여섯 분의 서류를 1월 말경 선정위원회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더 엄격하고 세밀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는 성도님들 앞에 최종 세 분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올 한 해 서울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며 각 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을 하여 하나가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무슨 일에도 핑계함이 없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 목사 청빙에 관한 일이나 교회 제반 사항에 궁금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 하셔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너와 내가 함께 성령의 때는 줄로 하나 되어 Coram Deo,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서울교회는 또 한 번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김혜언 장로
(예배위원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

가볍게 읊조리는 위의 찬양은 쉬운 곡이기도 하지만, 어린 유아/유치부부터 어른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일마다 우리 모두의 웃음을 여미며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다짐이고 마음을 대변하고는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와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될겁니다.”하니, “아닙니다. 제가 될 겁니다.”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러기 위한 믿음의 선한 경쟁, 경건의 경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와 같이, 나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것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맑과 정성까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에 예배위원은 예배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고 순서를 준비하는 경건회를 시작으로 복장이나 바른 예배의 섬김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예배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교회 쇠퇴, 온라인 문화 확산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흐트리고, 달라지고 순서와 방법이 바뀐다 해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나’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은 장소, 시간, 방법, 문화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5년도에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찬양이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길...



유충기 장로
(찬양위원장)

2025년 찬양대원으로 반주자, 지휘자로 임명받은 우리 모두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맡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에도 "내 주는 강한 성"이란 노래를 통하여 개혁의 의지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로마 카톨릭의 권위와 종교적인 음악적 표현과 오랫동안 정해져 내려오는 규범과 관습에 대한 하나의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음악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코랄이라는 하나의 음악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회의 성장에도 음악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에는 찬양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곳에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찬양대가 구성되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으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여덟개의 찬양대와 그레이스핸드벨과 주내힘 찬양단이 제2의 서울교회의 부흥기에 앞장서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탁드리기는 각 찬양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 힘들겠지만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찬양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준비된 찬양대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각 찬양대의 절기 찬양 시에는 가급적 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게 찬양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 추수감사 찬양은 모든 찬양대의 참가로 교회의 설립과 한 해를 축하하며 감사하는 감사주일로 교회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임 위원장의 노력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명자대회 기간 중에 열렸던 구민초청 음악회도 계속 이어가 기독교 문화의 사회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솔리스트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송년음악회의 활성화와 교회의 오르간 알리기 일환으로 진행되다 중단된 오르가니스트들의 정오 음악회 부활에 노력하겠습니다. 중단되었던 찬양대 세미나를 정례화해서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도권 교회음악과 오르간(한예종 포함) 전공생들에게 서울교회의 자랑인 오르간 견학과 교회를 개방하고 우리 통합교단 7개 대학 교회음악과의(오르간 전공) MOU를 체결하여 졸업연주와 독주회 등에 서울교회의 오르간을 적극 홍보하는 의미에서 본당 오르간을 개방 대여하여 오르간 연주 활성화와 한국의 교회음악 발전에 서울교회가 앞장 서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모든 찬양대가 함께 협력하여 전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서울교회의 곳곳에 퍼져 나가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에 조그마한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대원 모든 분이 찬양을 통하여 축복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 스스로 '가고 싶은 교회'로



오윤걸 장로
(교육위원장)

서울교회가 부모님 손에 이끌리어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 스스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바램 속에서 2025년 교육위원회는 출발을 합니다.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격려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친구들과 놀 곳, 갈 곳, 먹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청소년 기독교인의 비율이 14%라는 현실 아래 같은 반에서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주일에만 그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막연하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겠습니다.

영아부에서 사랑부,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메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학교, 학원, 사회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크리스천으로 구별된 행동과 인격을 갖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겸손과 은유와 성실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차영도 장로
(새가족위원장)

새가족위원회는 새가족부와 세례교육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새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4년에는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26명이고, 교인들 중 세례·입교·유아세례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된 분이 26명입니다.

금년에는 저를 비롯한 교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작년보다 더 많은 각 5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새가족부 교육(5주) 참여를 권유 드립니다. 교육을 받은 새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그간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봉사를 통해 교회 지체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료자들이 각 찬양대와 전도회, 선교회 등 참여를 통해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에 조기 정착해감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

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목회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인 수가 날로 감소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신 3대 사명(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과 3대 비전(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을 잘 이행하기 위해 새가족위원회 교사 모두는 내가 맡은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겸손과 은유와 성실함으로 성도님들을 섬겨 새신자들에게는 "다지고 싶은 교회"로, 세례·입교·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새가족위원회 교사 모두는 열심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



임우택 장로
(건축 및 건축물관리
위원장)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엡 1:22-23)

건축 및 건축물 관리위원회는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주의 전을 계속 아름답게 유지관리하며 교회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며, 내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성도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상처 입을 때, 그저 바

라만 보아야 하는, 비통하여 지우고 싶은 길을 걸으면서, 서울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서울교회를 최선을 다해 온몸과 마음과 정성 모아 돌볼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도 지하 3층에서 9층 옥상까지를 자신의 몸을 씻고 가꾸듯 시간 날 때마다 살피고 관찰하여, 수리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하며 평안히 교제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찬양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창밖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 세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백도환 장로
(전도위원장)

전도는 서울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 활동 시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외치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요 거두시는 자는 성령님입니다. 당장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고기도팀과 70인전도대는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매주 2회 이상 전도활동을 합니다. 아울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각 지회, 교회의 각 기관에서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전도활동에 참여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므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접촉하는 일입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형체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난이나 외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보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이후에도 접촉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실 것을 권면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도약의 장 마련에 기도로 동참을 ...



서은석 장로
(선교위원장)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서울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선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선교지와 선교비 지원을 조정하는 등 어려운 교회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둠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어 기도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 지금의 선교 여건이 변화되고 총회의 선교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됨에 따라 개교회의 선교 정책

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선교 정책을 펼쳐온 서울교회가 4대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이 지난 선교 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적기라 여깁니다.

이에 발맞춰 선교위원회에서는 올해 서울교회 선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물질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가운데 새로운 선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공정하고 엄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노제현 장로
(재정위원장)

재정에 대해 문외한인 제게 새해에 재정위원장을 맡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고 순종합니다.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임 서은석 장로님께서 세우신 재정 사용 원칙을 이어받아 교회 규정에 따라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더해진 헌금을 공정하고 엄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도와주실 것을 간

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들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실천적인 행위



김광태 장로
(구제위원장)

구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이며 서울교회 구제위원회는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대내, 외의 구제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무엇인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 느낌 이어서 성경적 의미에서 그 부족함을 찾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돌보는 일.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도 한번 췌 후에 남은 열매를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취할수 있게 하는 것. 밭을 7년마다 갈지 않고 남겨 두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와 같이 구제는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동기에 의해 행해진 행동이었으며 그 내용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제는 사랑에 기초한 행위이며 따라서 사랑이 없는 구제는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실천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첫 얼굴, 관리부



김승록 장로
(관리위원장)

서울교회의 관리위원회는 차량을 관리하는 주차관리부와 성도님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관리부 그리고 외빈 영접을 담당하는 예전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위원회는 외빈들과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회의 첫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는 4대 목사 청빙을 위한 일정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외빈들과 장로회와 아동부연합회 등 강남노회 여러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서울교회의 첫 얼굴로서 조금

도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차량 주차하실 때 질서 있게 하시고, 이중 주차하실 때는 안쪽부터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층 만나홀에서 식사하실 때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울교회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민호 장로
(교구위원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관이 건강하고, 나무는 물관과 체관이 발달해야 큰나무로 성장할 수 있듯이,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구위원회는 서울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구 간사(幹事)와

다락방이 중심되어 연결과 소통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 이어주고 소통하며, 서울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온전한 사명자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모시는 제4대 담임(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며, 서울교회에 주신 새로운 주님의 명령을 찾아 실천하는 사명자 되도록, 서울교회 공동체를 연결하고 소통의 중심에 바로 서는 교구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당회원 일동 -

신년감사예배

성찬식 :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
결·예산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25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신년을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올해 입례찬송은 19장으로 1, 2, 3절을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찬양하며 송영은 2장으로 변경됩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결·예산을 다루는 공

동의회가 열립니다.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 바랍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5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 삽지인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각 위원회 · 부서 및 자치회 대상 정기 회계감사 실시

감사대상 기간 : 2024. 1. 1 - 12. 31(1년간) / 감사기간 : 2025. 1. 14 - 31

감사부(부장 : 차영도 장로)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정위원회) 제5항(감사)에 의거하여 2024년도 각 위원회 ·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반회, 권사회 ▲ 위원회(부서) 11개(찬양, 교육, 새가족, 교구, 전도, 선교, 재정-사무국, 디자인부, 멀티미디어부, 샬롬대학, 순례

자치) ▲ 자치회(8개의 선교회, 8개의 전도회)입니다.

2024년에 위 해당 부서 회계 담당자(부장)는 담당 부서의 예산수령 개별통장(사본), 회계장부(원본)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이미 교회에 제출한 부서는 제외)을 1월 12일(주일) 오후 4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2025년 겨울학기 모집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통기타		12:30-			
	베이스기타	토	11:00-	10주	505	박민서 집사
	드럼	토	11:00-		505	김상윤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핸드벨	주일	14:3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피아노	토	9: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성악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2	양경실 집사
미술	사임당의 딸(초충도)	목	15: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건강	매트 필라테스	목	13:30-	10주	704	유은경 집사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토	13:00-	10주	702	박재현 선생
	조이스(방송댄스)	토	11:00-	10주	702	조경숙 권사
					701	김보영 선생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10주 코스
2. 25년도 겨울학기:1. 11일(토) - 3. 16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조이스-방송댄스 신설, 조이스-방송댄스는 강사 사정으로 2월부터 시작됩니다.
5.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개편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1월 한 달 시범 테스트를 거쳐 수정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옆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수정 사항을 사무국 홈페이지 담당자 예상영 선생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교역자



안반석 교육전도사 (유년부 담당)

- 전남대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원 신학과 재학 중
- 광주한마음교회 전도사 찬양사역자 역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연말



연말을 맞아 남자 노숙자들의 시설인 은평마을에 달력 450부를 전달했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 (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허정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6.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7.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교회 사무국
8. 구글신청서 양식 : 옆 QR





2025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예배.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교역자 동정

- 호산나대학 교목 파송 : 장석남 목사
- 사임 : 박미라 목사, 전진석 전도사
- 교역자수련회 : 1월 6일(월)-7일(화)

- ▲▲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기다리는 시간, 송년 음악회
- ▲ 2024년 12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었던 향존직은퇴식과 장한 어머니상, 성경통독 시상 (사진 : 이승준 안수집사 · 정승균 안수집사)

배식 봉사

오늘 : 도르가 루디아 뵈뵈
다음주 : 마리아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1월6일	월	창 18-20
1월7일	화	창 21-23
1월8일	수	창 24-26
1월9일	목	창 27-30
1월10일	금	창 31-33
1월11일	토	창 34-36
1월12일	주일	창 37-40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창6	마6	스6	행6
창7	마7	스7	행7
창8	마8	스8	행8
창9,10	마9	스9	행9
창11	마10	스10	행10
창12	마11	느1	행11
창13	마12	느2	행1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4대 위임목사 청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3.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시며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평화와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김익환 최중국 황하은
- ◇ 교육목사 손주찬
- ◇ 준전임전도사 성선혜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조하영 안반석
- ◇ 협동목사 양정호
- ◇ 호산나대학 교목 장석남
- ◇ 사무장료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흥기
- 서은석 노제현 김광태 김예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임우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601호
중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501호
고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7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